

# 호스피스 사례 보고서

- 가톨릭대학교 성 빈센트병원 호스피스팀 -

## 의사

### ◆ 환자명

정OO, 46세 남자

### ◆ 진단명

폐암

### ◆ 주소

호흡곤란과 전신 쇠약감

### ◆ 입원 전 경과

2004년 8월, 국립 암 센터에서 폐암(비소세포성 폐암 4기) 진단받고 항암화학요법 시작하였다. 2004년 9월부터 12월까지 Gemzar-Navelbine 투여하였고, 이후 시행한 흉부 CT에서 원발암의 크기 증가하고 복강 내로 전이하는 등의 병이 진행된 소견 있어 항암제를 Cisplatin-Irinotecan으로 바꾸어서 치료 하였으나, 여전히 병은 계속 진행하였다. 2005년8월부터는 경구 항암제(이레사) 복용 중이었고 이후 흉통, 복통 지속되고 내원 1주일 전부터는 호흡곤란과 전신 쇠약 감 악화되어 본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였다.

### ◆ 과거력 및 사회력

폐암 진단 직전까지 하루 한 갑반의 흡연력 있었다.

기타 과거력과 가족력은 특이 사항 없었다.

### ◆ 이학적 소견

호흡수는 분당 24회로 증가되어 있었고 전반적으로 만성 병색 소견 보이고 있었다.

호흡음은 양쪽 폐에서 다소 거칠었고, 좌상복부에는 압통을 동반한 종물이 있었으며

이는 복강 내 임파선 또는 폐암의 좌측 부신 전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 ◆ 입원 경과

내원 당일부터 경구 항암제(이레사)는 투여 중단하였고 흉통, 복통에 대해서 morphine 30mg/day로 통증 조절 시작하였다. 복강 내 전이로 인한 장마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장운동 개선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 병행하였고 호흡곤란에 대해서는 산소 투여하였다.

환자는 지속적으로 복통 호소하여 morphine 용량 증량하였고 입원 후 7병일 째는 100mg/day까지 증량하였다. 식욕감소, 쇠약 감 진행하여 경정맥 영양요법을 위한 중심정맥 도관 삽입술을 입원 후 15일째 시행하였고 수액과 영양 공급을 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morphine 용량 증가, 영양공급 시행하다가 입원 후 27일째부터 혈압 저하되고 의식 상태 저하되었으며 30일째 임종하였다.

간호사

1. 환자 정보

2004년 8월 폐암 진단

2004년 9월부터 2005년 6월까지 항암치료한 후 2개월간 요양원입원.

2005년 8월 iressa, 내원 전까지 xeloda를 복용 (항암제)

통증과 호흡곤란을 주 호소로 응급실 경유 입원

- 물핀 이외에 보조제를 병용하며, 마사지 및 아로마 요법을 시행한다.
-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예를 들어 싹틔) 대체 요법을 시행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해준다. (봉사자들의 기도와 성가 부르기, 의료진들의 잦은 방문)

2. 간호진단과 중재, 평가

▣ 간호진단

1. 통증과 관련된 안위변화

▶ 간호사정

〈주관적 자료〉

- 배가 아파요.
- 지금 주는 건 뭐죠?
- 계속 아파요.
- 살살 주세요.
- 계속 맞아도 되나요?

〈객관적 자료〉

- 배에 손을 대며 찡그리고 있음.
- 배에 싹틔를 하거나, 전기담요를 대고 있음.
- 웅크리고 누워 있음
- 거의 항상 heat lamp를 배에 하고 누워있음.

▶ 간호중재

- 통증에 대해 개방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함.
- 물핀에 대하여 효능과 부작용을 설명한 후 필요시 마다 맞도록 함.

▶ 평가

- 진통제 용량을 증량하면서 맞는 횟수가 감소하고 웃으며 보호자와 이야기 함
- 아로마 초와 꽃을 병실에 두어 항상 향기가 나게 하고 있음.
- 휠체어로 병실 밖을 나가거나, 화장실에 걸어서 다니고 있음.
- 편안한 수면을 취함.

▣ 간호진단

2. 죽음과 관련된 심리적 불안과 수용과정

▶ 주관적 자료

- 괜찮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 편안하게만 해 주세요
- 혈압이 어때요?
- 저로 인해 가족들이 하나가 된 것 같아서 좋아요.
- 어머니! 그만 가세요. 불편해요. 죄송해요.
- 나한테서 자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 집사람 어디 있어요?
- 아들이 보고 싶어요.
- 어제는 집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꿈을 꿴어요.
- 신발을 신고 싶어요. 신발이 없어서 게이트

에서 못 들어갔어요.

▶ 객관적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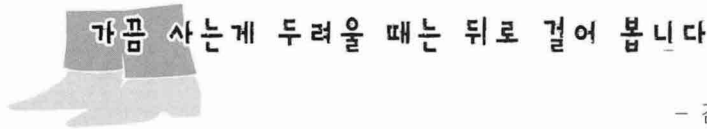
- 무표정한 얼굴로 누워있음.
- 손에 묵주를 갖고 있음.
- 보호자가 항상 곁에 있음.

▶ 간호중재

-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 항상 보호자가 있도록 한다.
- 보호자에게 곁에 있을 때 신체적 접촉을 하도록 한다.
- 냄새에 민감하므로 아로마 요법을 시행함.
- 음악을 들려준다.(성모성가...)
- 환자의 얘기에 주의를 하며 대화를 하도록 한다.(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방문)
- 성지 순례를 통한 전환요법을 시행함.

▶ 평가

- 무표정하게 누워 있다가 점점 의료진을 보면 웃으며 대답함.
- 꿈을 꾸는 얘기를 하도록 하면서 점점 임종을 보호자와 같이 준비하도록 함.
- 가족들이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길 희망하고 표현함.
- 부인과 함께 침대에서 누워 9월 29일 오후 4시 30분 임종하심.
- 계속 환자와 누워서 자고 싶다는 부인은 환자가 임종한 후에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꿈이라는 얘기를 반복하며 환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뽀뽀를 하는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 장례식장에서도 웃으면서 울고 있는 눈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



- 김정한 -

가끔  
사는게 두려울 때는  
뒤로 걸어 봅니다  
등 뒤로 보이는 세상을 보며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하며  
용기를 얻습니다

가끔  
당신이 미워질 때는  
당신과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뒤로 걸어 봅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조심 조심 뒤로 걷다보면

당신을 사랑하면서 아팠던 순간도  
당신을 사랑하면서 기뻐했던 순간도  
한편의 드라마처럼 흘러 갑니다

기쁨의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하나가 되어 주르르 흘러 내립니다

가끔  
사는게 두려울 때는  
뒤로 걸어 봅니다  
등 뒤로 보이는 세상을 보며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하며  
용기를 얻습니다

사회복지사

1. 일반적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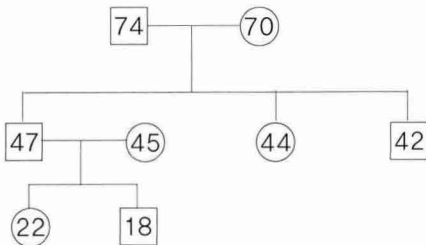
이름 : 정 00  
 성별 : 남  
 나이 : 47세  
 결혼 여부 : 기혼  
 학력 : 대학원졸  
 종교 : 천주교  
 직업 : 전00연구소 연구원('05.6.30부 퇴직)  
 경제상태 : 중  
 주 수입원 및 월수입 : 없음(퇴직 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 받음)  
 주거형태 : 아파트(자가)  
 의료보장 : 의료보험  
 입원일 : 2005년 8월 25일  
 진단명 : 폐암말기

2. 의뢰과정

의무기록지에서 확인한 본 사례는 2004년8월 A 대학병원에서 폐암말기진단을 받고 국립 암 센터에서 항암 치료 6주기를 시행한 후 입원 전까지 강원도 원주 소재 00요양원에서 2개월간 요양을 하던 중 증세가 악화되어, 2005년 8월 25일 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호스피스병동으로 의뢰됨.

3. 클라이언트의 가족 구성도

1) 가계도(Genogram)



2) 가족 배경

● 클라이언트의 아버지 (74세)

6.25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전투에 참여하고 1953년 간부후보생으로 임관하여, 1968년까지 군 장교로 근무한 후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에는 구로공단에비군부서에서 20년간 근무 후 퇴직하셨음. 현재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스포츠 댄스, 등산 등 취미활동으로 노후를 즐겁게 보내고 있으며, 아들의 병세에 대한 감정은 어느 정도 초월한 상태임. 발병 후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것도 아들의 성격 덕이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셨음. 경제적으로는 불편이 없으며, 손자, 손녀의 학비와 아들의 병원비를 부담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함. 성격은 비교적 권위적이어서 가족들의 의견보다는 본인의 주장에 의해 가정을 움직여왔다고 함.

● 클라이언트의 어머니 (70세)

결혼 후 전·후방 각지로 이사하면서 남편의 뒷바라지와 자식들 양육에 힘써 온 전형적인 전업주부로서,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으며 현재는 남편과 함께 노후생활을 즐기고 있음. 아들이 입원 후에는 매일 병원에 찾아와 며느리와 교대로 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아들의 병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으며, 순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 클라이언트의 누나 (44세)

여동생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현재 서울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며,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함.

● 클라이언트의 형 (42세)

남동생은 결혼하여 현재 000연구소에서 근무

하고 있으며,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함.

● 클라이언트의妻 (45세)

남편의 간호에 혼신을 다하고 있고,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편임. 대학교에 다니는 딸과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을 돌보는 일도 힘겹기는 하지만 지난 시절을 생각하면서 남편에 대한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클라이언트를 편안하게 해 주고 안심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남편의 병세, 심리적인 상태를 잘 대변해 주고 있으며, 봉사자들과도 마음 편하게 대화를 하고 있음. 시부모님과도 갈등도 없다고 하며, 도움을 주시는 시부모님께 감사함을 표하고 있음. 클라이언트의 사후문제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음. 마지막 순간까지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 클라이언트의子 (22세)

딸은 현재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밤에는 아버지를 찾아와서 병간호를 하는 효녀라고 함.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앞으로 어머니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 클라이언트의子 (18세)

아들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대입준비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밤에는 아버지를 찾아와서 병간호를 하고, 아버지 병환을 많이 걱정하고 있음.

4. 개인력

- 아버지가 군인으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4번씩 이사를 하였으며,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유년시절은 초등학교 입학 전 강원도 거진에서의 생활이었다고 회상하고 있음.
- 중, 고등학교 및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으며,

병력특례요원으로 OO연구소에서 근무한 후에 바로 OO에 취직을 하여 입원 전(2005. 6. 30) 까지 근무하였음.

- 성격은 근면 성실하고 깐깐한 편이라고 하며, 입원 전 회사에서 맡은 직책이 성격과 맞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며, 건강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2004. 8. 건강검진과정에서 폐암 말기로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급속히 악화된 상태임.
- 권위적인 부친 밑에서 성장하였으나, 한번도 부친에 대해 반항해 본 적이 없다고 함. 왜냐하면 부친의 성격이 권위적이긴 하지만 부친의 언행에서 부당한 경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함.
- 가정생활은 화목하였으며, 부인의 성격과 재치가 큰 활력소가 되었다고 하며, 술과 담배는 좋아하는 편으로 술은 1일 1병, 담배도 1일 1갑 반씩을 피웠다고 함.
- 말기 암 판정을 받은 후에 치료과정에서도 금년 1월까지 회사에 출근을 할 정도로 강인함과 원리원칙주의에 입각한 행동을 해왔다고 함.

5. 병력 및 현 상황

- 2004년 8월에 최초 진단을 받은 후 국립 암센터에서 20회(6주기)의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기간 중에 강원도 한 휴양지에서 2개월간 요양을 하기도 하였음.
- 휴양 중 상태가 악화되어, 2005년 8월 25일 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부인의 잘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싶다는 원의에 따라 호스피스 병동에 8월 27일 입원함.
- 클라이언트의 현 상태는 폐암 말기 상태로 치료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으며 오로지 진통제에 의한 통증완화와 남은 여생동안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Hospice

Care를 받고 있음.

- 규칙적이고 정량적인 음식물을 섭취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하루 1~2회 정도 소량의 음식을 섭취하고 있음.

## 6. 문제 사정

### 1) 당면 문제점(클라이언트와 가족 중심)

-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병세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울단계에 있음.
- 클라이언트는 막연히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나, 입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으며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만약 자신이 죽으면 부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함.
- 부모님이 부담해 주시는 병원비와 생활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
- 부인은 남편이 오래 살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무엇을 하며 살아갈 대책도 없어 막막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함.

### 2) 사회사업적 문제 사정

-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병세와 예상되는 잔여 수명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제.
- 클라이언트에게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
- 부모님이 부담해 주시는 경제적인 지원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심리적 지지를 해 주는 문제.
- 클라이언트의 생존기간에 해야 할 일과 사후에 할 일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문제.

- 클라이언트를 위해 남은 여생동안 가족과 호스피스 팀이 해 줄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시적인 문제.

## 7. 개입 계획

### 1) 개입목표

본 클라이언트는 병세의 호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말기환자로서 호스피스 정신에 입각한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로 심리사회적인 개입을 통해 남은 여생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남은 가족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 없이 임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환자가족들도 편안하게 환자를 놓아 줄 수 있도록 심리적 지지를 해 주며, 임종 후 장례식 등 가족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도움과 사별 후의 가족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개입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첫째, 클라이언트의 자기성찰과 자신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도움.

둘째,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노력.

셋째, 클라이언트가 죽은 후 남은 가족 특히 부인에 대한 걱정을 없애주는 도움.

넷째, 클라이언트의 사후에 대배한 가족들이 준비할 사항에 대한 도움.

다섯째, 클라이언트의 생존기간동안 의료 및 영성활동을 포함한 삶의 질 문제

### 2) 초기개입과정

상기 클라이언트는 경제적인 문제와 가족적인 갈등문제 등은 없는 상태로, 클라이언트의 역할 부재에 따른 상실감을 어떻게 위로 해 주고, 병과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데 1차적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가족과 봉사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클라이언트가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데에도 유의하였다. 또한 의료적인 처치에 해당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통증으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도 관심을 두었다.

### 3) 중기개입과정

클라이언트 및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과 의 면담 과정에서 발견된 가장 큰 이슈는 향후 '예상 생존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는 것이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문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환자의 관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심과 애정을 피부로 느끼게 해 주는 일임을 상기 시켰으며, 사회사업적 검토가 요구되었다.

### 4) 종결개입과정 - 종략 -

## 8. 종결 및 평가

### 1) 종결

- 클라이언트 자신에 관한 문제와 가족의 문제, 사후 각종 절차에 대한 제반 문제는 원만히 논의하였고 준비되고 있다.
-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클라이언트의 가족들도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후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 2) 평가

- 클라이언트 자신에 관한 문제는 호스피스환자의 의료 절차에 의해서 완화의학적인 측면에서 고통완화에 목표를 두고 잘 시행되고 있다고 사료되고, 자신의 죽음 후에 닥쳐올 문

제에 대한 걱정은 부인과 부모님 사이에 충분한 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만히 잘 처리되리라고 평가된다.

- 부인을 비롯한 자식들은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경제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서로 지지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평가된다.
- 장례문제 등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 되었으므로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평가된다.
- 클라이언트의 사후 가족에 대한 문제는 본인들의 노력과 함께 병원 사별가족프로그램에 참여케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의 활용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클라이언트 스스로 죽음이 임박했음을 감지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갈 때가 된 것 같다. 광채가 나타나는 길을 따라 간다...등) 원만하게 개입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 9. 사후지도

클라이언트의 부인 및 자녀, 그리고 부모님도 클라이언트의 사후에는 심적 공황상태가 올 수 있으므로 지역자원과의 지속적인 연계활동을 통해 심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지도하기로 하였다. 첫째, 부인의 신앙생활을 통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당 구역장의 지지를 연계한다. 둘째, 부모님과의 보다 깊은 유대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대화와 상호 방문을 적극 권장한다. 셋째, 병원 호스피스 사별가족 프로그램에 적극참여를 유도한다. 넷째, 병원 호스피스팀과의 유기적인 교류를 추진한다.

## 환우와 함께 한 병상 일지

2005년 9월 9일(금)

수녀님이 환우를 소개해 주셨다. 인사를 했는데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으며, 체중이 34kg 라고 하였다. 벽에 붙여놓은 가족사진과는 너무나 판이한 환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우의 부인과도 인사를 했다. 아주 쾌활한 성격이었으며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환우와는 면담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우선 가족과 가벼운 대화로 시작하였다. 다행히 부인과 대화를 해보니 환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알 수가 있었다. 직설적이지 않고 의도적이지 않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자세를 견지하려고 노력하였다.

2005년 9월 12일(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환우와 인사를 나누었다. 공식적으로 두 번째 만남이었다.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조금 알아들을 수 있었다. 찾아주어서 고맙다는 이야기였다. 어머니가 간호를 하기 위해 오셨다. 부인과 교대를 하며 간호를 하는 셈이다. 어머니와도 인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오후에는 환우의 아버지가 오셨다. 군 후배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무척 반가와 하셨다. 환우에 대해서는 초월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 성격 덕분에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쾌활하고 호탕한 성격의 단면을 보이셨는데, 아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일부러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아들도 아버지 앞에서 무언가

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려고 하는 기색이 역력하였다.

2005년 12월 14일(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힘이 없는 얼굴로 나를 쳐다 보길래, 악수를 청했더니 힘없이 잡는 것이었다. 간호하는 부인과 작은 감정적 마찰이 있는 것 같았다. 대화내용을 살펴보니,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 환우가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어제 아버지가 오셔서 부인에게 카드를 주고 가셨는데,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사용내역을 잘 기록해서 아버지에게 보고를 드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자, 부인은 액수가 좀 큰 것만 기록하겠다고 하니, 환우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환우의 눈치를 보던 부인이 그러마고 하니, 얼굴을 누그러뜨리는 것 같았다.

등이 불편하다고 하였다. 등을 마사지 해 주었더니,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다. 휠체어에 태워서 복도에 나가서 햇볕을 쬐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신도 병이 나으면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인간의 본성이란 생각이 들었다. 30분 정도 있으니 들어가자고 하여, 안아서 침대에 다시 눕혀 주었다.

오후에는 어머니가 오셨다. 환우의 어린시절, 당신께서 살아오신 이야기도 해 주셨다. 첫날은 어머니께서 말씀을 잘 하려고 하지 않으셨는데, 마음을 열어 주시는 것 같았다.

2005년 9월 16일(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고 부인이 말해 주었다.



어머니가 환우의 다리를 마사지하고 계셨다. 대신 해서 등과 다리를 마사지해 주니 좋아했다. 어머니께서는 환우의 향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않고 있다고 하셨다. 병세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누구와도 상의하고 싶지도 않다고 하셨다.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는 일 밖에는 달리 할 일이 없다면서 한숨짓는 어머니가 안쓰러웠다.

#### 2005년 9월 20일(화)

추석연휴 뒤라서 교통량이 많을 것 같아 일찍 병원에 도착하여 환우에게 갔더니,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다. 오늘 10시에 남양 성모 성지로 호스피스 환자 성지순례에 어머니와 함께 가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다른 일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시니 기분이 영 좋지 않은 것 같았다. 그래서 부인과 함께 가자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거렸다. 마음 풀자고 약수를 청했더니 웃으며 내 손을 꼭 잡고 흔들면서 자신의 입에 갖다 대었다. 좋다는 표시란다. 부인이 외출준비를 하러 집에 간 사이 등을 마사지 해 달라,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주문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저장해 달란다. 그것도 13번에다가... 나중에 부인에게 이야기 했더니, 자기 식구와 친척들이 12번까지라고 하였다. 부인이 남편에게 “친구보다 더 좋아?” 하니, ‘그렇다’ 고 고개를 끄덕였다. 첫날 자원봉사자의 기록지에서 발견했던 “나에게 길게 이야기하면 머리가 아파진다. 설교하지 말아 달라”는 환우의 멘트를 상기하면서 경청을 많이 했던 효과라고 생각한다. ‘경청’의 중요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환우를 부축하여 휠체어에 태우고 앰블런스로 출발했다. 환자 세 분에 가족 여섯 분,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 네 분, 간호사 선생님 세 분, 수녀님 세 분, 화요일 봉사자 여덟 분, 실습생 한 명 해서 28명이 함께 갔다.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출발했다. 과연 이런 행사가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았다. 병원 경영 측면에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되었다. 호스피스의 목적을 구현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환자들에게는 ‘마지막 외출’ 일수도 있는 시간이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잘 조성된 성지의 경관을 감상하고 휴식을 취했다. 무척 좋아했다. 함께 사진도 찍고, 차도 마시고, 점심도 먹으면서 몇 시간을 보낸 후 병원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어드렸더니, 손을 꼭 잡으면서 몇 번이나 ‘고맙다’ 인사를 하였다.

#### 2005년 9월 21일(수)

상당히 많은 양의 가을비가 내리니 싸늘한 느낌마저 든다. 좀 일찍 갔는데 병실 문이 닫혀 있어, 한 시간 정도를 기다렸다. 간밤에 잠을 못자서 아침에 늦잠을 잤다고 하였다. 환우의 안색이 더욱 좋지 않았고, 눈동자에 초점이 흐려져 있었다. 신체의 왼쪽이 거의 다 마비된 것 같았다. 등과 왼쪽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였다. 아버지가 오셨다. 어제 나들이에서 수고했다는 인사와 아버지로서 자식을 앞세워야 하는 심정, 최근의 생활에 대한 상황 발병 후 치료과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들이 자기가 죽으면 며느리, 손자, 손녀와 함께 살아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하셨다. 추석 때 가족 묘지에 가서 장지까지 정해 놓고 오셨다면서, 한숨을 크게 쉬셨다. 그리고 예비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물으시길래, 어쩔 수 없지만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하시고, 웃으며 받아들여시라고 했더니, 당신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고맙다고 하셨다. 며칠 동안 환우와 함께 하면서 들은 이야기인, ‘부모님께 경제적 부담을 드리고 있는데 대해 무척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더라’ 고 했더니. 기분 나쁜 표정을 짓지는 않으시고, 아들의 성격이 그렇다고 하셨다.

오후에는 어머니가 오셨다. 환우가 어머니한테,

교대하여 좀 쉬러 간 부인을 전화해서 바꿔달라고 하였다. 부인과 전화하면서 “빨리 와, 당신이 필요해” 그리고 “엄마가 불편해”라고 하였다. 그 동안 그러지 않았는데, 어떤 전조 증상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차츰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져 가는 것 같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안하다고 하더니, 잠깐 교대하러간 부인을 다시 호출하는 등의 행동이 말기증상의 표현이 아닌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 2005년 9월 22일 (목)

일찍 병원에 갔더니, 다른 호스피스환자가 막 임종을 맞이했다고 하여서 봉사자들과 함께 임종의식을 가졌다. 그 후 환우의 병실을 찾았더니 문이 닫혀 있어서 기다렸다. 한참 후에 들어갔더니 잠을 잤다고 하였다. 더 수척해진 얼굴로 악수를 하는데 힘이 더 없었다. 오후에는 부인과 며칠 동안 망설여 오던 죽음 후의 문제에 대한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확실히 하고 있다고 하였다. 장례식은 이 병원에서 치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고, 수의(壽衣)의 품질 문제에 대한 생각도 이야기 하였다. 시신(屍身)치리는 화장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장지는 집안에서 준비한 가족묘지가 있으나, 부모 앞에 가는 자식을 매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찰에 안치하는 방안, 산골장(散骨葬)을 하는 문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환우는 최근 세례를 받았는데, 부인은 불교의식으로 유골을 안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생각을 남편에게 했으나 아무 말이 없더니, 며칠 후에 남편이 기도를 해 달라고 해서 사찰관련 이야기는 더 이상 못했다고 하였다. 이사를 하고 바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성당 교우들과 본당에는 아무 이야기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염치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동안 명랑하게만 보였던 부인의 속내를 충

분히 알게 되었고, 개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다. 호스피스담당 수녀님과 원목실 수녀님과도 상의를 했고, 수녀님이 면담을 하기로 하였다.

#### 2005년 9월 24일 (토)

병원은 휴무하는 날이지만, 병동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환우의 병실에는 부모님과 아들, 딸 온 식구가 다 모여 있었다. 어제 저녁에는 상태가 좀 심각했다고 하였다. 인사를 했더니, 손을 잡아 주었다. 상태는 나날이 나빠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엿그제 부인과 의논한 장례문제 등에 관해 부인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의중을 떠 보았더니, 다 좋은데 유골은 정상적으로 가족묘지에 안장을 해야겠다고 하였다. 부인에게 그 뜻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사후 모든 문제가 사전에 거의 합의가 된 상태이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수녀님이 오셔서 환우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병자성사를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부인도 그 동안 냉담한 것에 대해 고백성사를 보기로 했다. 그렇게 돌덩이처럼 무겁고 차갑던 부인의 마음을 돌리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 사람의 의지로는 어려운 문제이리라, 신부님이 오셔서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전 가족이 환자의 손을 잡고 병자성사를 집전하셨다. 성사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환자가 느닷없이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어머니에게 “엄마, 세례명이 뭐예요?”라고 해서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신앙을 갖기를 희망해서, 딸이 “아빠, 걱정마세요. 제가 엄마를 끌고서라도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게요.” 했다. 며칠사이에 벌어진 사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성사예식을 거행하고 나니, 환우는 마음이 평안하다면서 엄지와 검지를 동그렇게 해서 OK사인을 보내는 것이었다. 신앙이 없는 환우의 어머니, 아버지도 뭔가를 생각하

는 모습이 역력했다.

2005년 9월 26일 (월)

환우의 병실을 들어서니 어제 밤사이에 제대로 잠을 못 잤다고 하였다. 부인에게 계속 성가를 불러달라고 했고, 낮에는 꿈에서 아주 큰 성체 2개가 나타나서 부인과 자신에게 안기길래 받아서 두개를 합쳐야 하는데 부인이 없어서 막 찾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광채가 찬란한 빛으로 나타났고, 그 빛이 인도하는 쪽으로 따라 갔다고 한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 집에 잠시 간 부인을 빨리 오라고 했다고 한다. 부인은 너무 신기하다고 했다. 아이들을 찾아서 전화를 바꿔주니, 엄마가 부르는 성가를 녹음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부인이 성가를 불러주니, “이제 나는 가야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부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면서, 부모님께 잘해달라고 부탁도 하며 부쩍 성가와 기도를 많이 해달란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가를 불러주었더니 고맙다고 한다. 환우를 둘러싼 일련의 일들이 참으로 오묘하다.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힘든 일이 아니겠는가?... 햇볕이 밝게 비추는 창가 쪽으로 자리를 옮겨 주었다.

2005년 9월 28일 (수)

병실에 들어가니 환우 분께서는 황토색 한복과 양말을 신은채로 반듯하게 누워서 눈을 감고 계셨다. 의식은 거의 없는 듯 보였는데, 부인과 자녀들은 밝은 표정으로 간호하면서 남편의 옷자락에 편지를 쓰고 있었다. 마지막을 치닫고 있는 남편에게 가족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편지라고 했다.

2005년 9월 29일 (목)

오늘 환우는 부인에게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고 부인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부인의 신앙체험이 컸던 것 같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남편에게서 느낄 수 있었고, 모든 가족을 주님께

로 인도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주님께 맡긴다고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성모님에 대한 성가를 계속 불러달라고 했다.”

그날 오후 4시 30분경 부인이 곁에서 잠깐 잠든 사이에 환우는 아주 평온하게 이 세상을 하직했다. 참으로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으로 행복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생각이 든다. 부모님과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의 간호를 받으며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아주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였으니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았다.

2005년 9월 30일 (금)

오후에 권선동 성당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았다. 병원에서 간호할 때는 조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부인이 너무 슬퍼하고 있었다. 어머니도 그러셨다. 고인을 위한 연도를 바치고, 입관예절도 참여했다. 부인을 위로하고 나오는데 고인의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서 나를 보고 와락 껴안으시면서 영영 우셨다. 그렇게 당당하시던 분이 ‘정 선생, 그동안 너무 고맙소.’를 반복하면서 몸부림을 치셨다. 아버님 역시도 그 동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당시 앞서가는 자식의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하는 모습을 보기가 정말 안타까웠다. 고인의 영정 앞에서 ‘이제 고통 없는 세상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고 나왔다. 가족들의 슬픔을 아는지 가을비는 줄기차게 내리고 있었다.



## 원목자

## 바람과 함께 떠난 여행

먼 길을 떠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의 모습은 애처로우면서도 아름답게 느껴진다. 그리고 고통을 사랑으로 승화시켜 하느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을 것이다.

가을이 오고 있는 어느 날,

병실문이 열려진 2인실에 들어섰다.

눈을 감고 주무시는지 꼼짝도 하지 않으시고 누워계신 형제님의 모습은 살이 빠져 뼈만 앙상하니 남아있어 보기에 안쓰러움을 느끼게 했다.

가만히 서서 환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혹시나 눈을 뜨시면 대화라도 나누고 싶었다.

그러나 환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따뜻한 햇살만이 병실을 비추어 힘든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병실을 나왔다. 그 다음날, 다시 병실을 방문했을 때에는 환자와 부인, 그리고 어머니께서 함께 계셨다. 환자와 짧게 대화를 나누었다.

“숨쉬는 것도 힘들고 편히 쉬고 싶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라는 환자의 표현은 자신보다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더 묻어나고 있었다.

환자가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은일 뿐이나 가족들은 서로 함께 하고 있음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환자가 가족들을 마음으로 챙겨주고, 부인과 어머니는 환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기분을 좋게 해주려는 손길이 방문하는 나에게는 매우 인상적으로 남았다.

고통 중에서도 말없이 인내하는 그분의 모습이 사랑으로 말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생각이 되었다.

여유 있는 환자의 농담과 미소는 가슴 속 깊은 곳에 가족들에 대한 큰 사랑으로 그의 마음넓이를 짐작케 했고, 주님께 향한 사랑으로 크게 느껴졌다.

남편보다 먼저 주님을 알았던 부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음을 가슴아파하시는 환자가 부인에게 성당에 열심히 다닐 것을 권유하였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조금만 더 있다가 다니겠다고 하니 길을 떠나야하는 환자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였을까! 주님께서는 환자의 마음을 아시고 준비를 시키신 것인가?

환자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병자성사를 준비하였다.

신부님께서 고백성사를 드리러 병실로 들어가셨고 우리는 복도 휴게실에서 고백성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다가 부인에게 “지금 자매님도 형제님을 위해서 고백성사를 받으시는 것이 어떠세요?”하고 여쭙었더니 이외로 부인이 “네, 그러죠”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순간적으로 너무나 깜짝 놀랐다.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기에 얼마나 기뻐는지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다 드렸다. 그 순간 신부님께서 나오시면서 환자가 따님을 찾으신다고 하셔서 따님이 병실에 들어가고, 신부님께서 환자가 성사를 보는데 소리도 작고 따님만 찾으신다고 하시며 성사를 드려야 될 지 말아야 될 지 환자의 상태를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여쭙보셨다.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신부님, 자매님께서도 성사를 보실 준비가 되셨는데 지금 성사를 먼저 보시면 안 될까요? 라며 자매님의 성사를 청해 비어 있는 옆 병실로 신부님을 모셨다. 자매님이 성사를 보시기 위해 들어가셨다.

그 순간 하느님께서 자매님을 이끄시기 위하여 형제님을 이용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의 섭리의 손길이 느껴졌다. 짧은 순간 일어난 일이었지만 나는 이 순간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믿게 되었다.

자매님을 당신 곁으로 다시 불러들이시는 하느님의 손길이 형제님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인은 남편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소원을 들어 주어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도록 용기를 낸 것이었을까?

고백성사를 마치신 자매님께서 병실로 들어오시며 엄지손가락을 높이 치켜 올리며, “여보, 나, 잘했지? 나, 성사 봤어” 라고 하니 형제님도 엄지손가락을 세워 올리며 “잘했어” “최고야” 라고 대답하셨다.

이렇게 부부의 거룩한 성사는 이루어지고, 며칠 후 환자의 임종의 시간이 왔다.

병실을 방문하니 침대위에서 형제님을 안고 잠

이 드신 자매님은 깨어날 줄을 모르셨다. 가만히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숨을 쉬는 형제님의 움직임이 무척 힘들어보였다.

누워 계신 자매님의 팔의 무게가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그러나 환자는 온몸으로 자매님을 위하여 기꺼이 그 무게를 감수하듯이 힘든 숨소리와 함께 가만히 눈을 감으신 채 누워계셨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에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바람처럼 조용히 길을 떠나셨다.

사랑으로 이 세상의 고통을 모두 짊어지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 주어지는 고통의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고 계심을 체험하였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기쁘게 주님께로 가신 형제님처럼 주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말 없이 침묵하신 예수님처럼...

## 천 개의 갈래로 부는 바람

제 무덤가에 서서 울지 마십시오.

저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잠들은 것이 아니니까요.

저는 천 개의 갈래로 부는 바람입니다.

저는 흰눈 위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저는 여우는 곡식 위에 비치는 햇살입니다.

저는 은근히 내리는 가을비입니다.

그대가 아침의 적막함 가운데 깨어날 때

저는 하늘을 고요히 선회하다가

갑작스러운 비상을 감행하는 새입니다.

저는 밤하늘에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별빛입니다.

제 무덤가에 서서 울지 마십시오.

저는 거기 없습니다. 저는 죽은 것이 아니니까요.